

민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연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집중 김건희 모녀·임성근·김계환 등 총 39명 증인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여당은 국민청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사령

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모두 39명을 채택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환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나 청원의 쟁점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으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 안전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국기문란 사항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항"이라며 "법사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하고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곡구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된

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원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20일 공개돼 사흘 만에 5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뉴스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못지킨 尹 정부 '농정 무능' 드러내"

민주 윤준병 의원 "계속된 하락세로 쌀값 14.3% 감소 농민 기망하며 약속마저 거부... '농정포기' 정부 증명" 농식품부에 사과 촉구... "농산물 가격안정제 수용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9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 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원 보장'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며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나 감소한 18만 6,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2,000원이며,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1,000원으로 확인했다"라고 지적하고, "장관 취임 이후 한 번이라도 쌀값 20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꾸짖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정부가 23년산 쌀 15만톤 수준의 민간재고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 기준 민간재고량이 70만톤 이상인 상황에서 15만톤을 적정규모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며, "실사 15만톤이 적정하더라도, 정부의 공공비축은 5만톤에 그치고 나머지 10만톤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부의 '쌀값 20만원 보장'이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의 약속마저 실행하지 못하는 '농민을 망하게 하는(농망) 정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후반기 고창군의회 첫 임사회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의(의장 조민규)가 9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첫 임사회를 갖는다.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사회에서는 개회 둘째날인 10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024년도 고창군의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성만 의원) 소관의 △고창군 이스트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진 의원) 1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종훈 의원) 소관의 △고창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종훈 의원) 등 3건, 총 4건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의회, 의정대상 최고의장상·최고위원장상

군산시의회 김영일 전 의장과 나중대 의회운영위원장(전 경제건설위원장)이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컨텍스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각각 최고의장상과 최고위원장 상수장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김영일 전 의장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기자회견·결의대회 등 노력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에 3차례 방문하여 신시가지 관광레저용지에 주거기능을 추가해 줄 것과 새만금 3개 시군과 나아가 익산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구축·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하는 등 누구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나중대 의회운영위원장은 경제건설위원장 시절, 소통에 역점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업무보고, 간담회 등 집현회의 협력과 견제의 조화 속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는 등 소통과 화합·유연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페이퍼, 청년 근로자 유족들과 합의... 장례절차 진행

현장 재조사서 황화수소 검출 유족·정치권의 진상 규명 요구 언론인 초청 설명회 열기도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15분 전후 젊은 회사원이 전주페이퍼 공장 내에서 원로 상태 확인차 순찰을 나갔다가 갑자기 숨진 일이 발생했다.

유족과 노조 조합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도 나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웠다.

회사 측에서는 지난 7월 7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도내 일간지와 방송사 인터넷신문 기자들을 불러서 김경식 공장장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그리고, 기자와 대동해 현장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개 중의 황화수소 잔량을 측정했다.

참여한 기자들과 함께 회사 측과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가 동시에 황화수소(H2S) 측정결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약 4 PPM이 검출됐다. 이렇게 미량이나 황화수소가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회사 측에서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고, 김경식 공장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앞으로 미량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후시라도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황화수소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로 10 PPM 이하는 생명의 위험이 없는 상태



지난 7일 오전 전주페이퍼 측에서 실시한 사망사고 현장재조사.

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량이라도 오랜 기간 노출되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기자도 마지막에 현장확인에 참여하였기에 장시간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현장 확인시간도 상당한 긴 시간이었지만 구토나 어지럼 증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간의 역한 냄새는 나서 이겨낼 정도라고 판단했다.

김경식 공장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 발생 후 전북대병원에서 1차로 사망자에 대하여 실시한 부검결과에 심장비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했으나, 앞으로 나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검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만호 기자

회사 측에서는 7일 오후 회사 대표가 유족과 합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며 원만하게 합의 후 8일 오전 회사 앞에서 추모식을 갖고, 고인의 고향인 순천으로 운구하여 순천의료원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말도 있듯이 회사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회사 경영을 해야 하며, 이러한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꿈 많은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산업현장에서 쓰러져 간 것을 거울삼아 무엇 보다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회사 경영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중소기업 컨설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지역 중기 현안 공유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역 중소기업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한다. 지난 4월 완주기업지원단 출범에 따라 평소 지역 중소기업에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김 부의장이 본격 행보에 나선 것이다.

9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컨설팅' 첫 현장 간담회는 지난 8일 (주)쓰리축코리아와 한국열처리에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국가품질경영협회 강성진 명장, 한동노동부인 김도형 겸직심사원, 전북산업전문가협회 손미경 사무국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슬기 주무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지역 소재 기업들의 인식 비교 및 현장 진단 및 지역 산업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특허·해외 출원, 지식재산 긴급지원서비스,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화 융합기술 등 지원 △스마트 공장 추진, 기술지도, 작업·공정개선에 대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등을 논의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우수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용태 도의원, 학생해양수련원 체험학생 대상 특강

'지방의회와 지역발전' 주제 "학생들이 더 많은 진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 교육위원회)은 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해양·안전체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인성 특강을 실시했다.

전용태 의원은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입교한 무주고등학교 1학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사와 역할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본인 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와 과정 등에 대해서도 친근감이 있게 이야기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전용태 의원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히 성장하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꼼꼼히 살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은 도내 학생 대상 해양안전 체험, 수상안전체험 등 체험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올해부터 마름수련의 일환으로 지역의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인성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공식 첫 의정활동 나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집중호우 피해 상황 파악 지역 현안·건의 사항 청취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제9대 후반기를 맞아 공식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진안군의회는 9일 진안을 행정복지센터로 시작으로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황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동창욱 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봉사하는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동창욱 의장은 "제9대 진안군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대

의 기관으로서 진안군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며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안군의회는 지난 1일 제202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하반기 원구성을 시행하고 2년간의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